

액션과

인터액션

용해숙

시각 예술가,
분홍공장 대표

지역 문화생산에 대한 시제.

액션과 인터액션

용해숙

시각 예술가,

홍천 지역문화 공간

분홍공장 대표

action —→ and, or ↔ interaction

지역과 지방 또는 소도시와 시골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위한 노력은 각 언어가 내포한 차별적 위계를 지양하는 맥락에서 유효하다. 실제 각 지방은 근대화 이후 도시화의 맥락에서 소외 정도의 위치 지움에 따라 실존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인들의 노스텔지어로 대상화된 이미지와 더불어 다양한 이유로 필요에 따라 지역, 지방 그리고 시골의 의미가 작동한다. 왜 지역 용어들은 혼용되는가?

지금의 행정단위로서 지역은 세계의 다양한 정치 경제적 조건 속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과 근대화의 문맥 안에서 그 근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추동한 국가권력 간의 전쟁으로부터 (지역 경제) 자본과 (국가 권력) 강압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 일반화할 수 없는 각 지역의 풍부한 변이를 포함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를 조금은 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세계 지도 위 크고 작은 다양한 경계로서의 지역은 실제로는 문화 정체성의 맥락에서 민속지적 역사성과 자본 질서 재편성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과 충돌/경합하는 상호작용의 좌표에서 지금에 이른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현재 한국의 ‘지역’은 근대화의 자장 아래 경직적인 국가 주도 지역공간 개발이 경제적 차원의 지역 불균등 발전과 문화적 차원의 지역 소외라는 이중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이를 극복하고자 방법을 모색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도 아래, 모든 지역 문화행정은 다양한 문화정책을 발표하며 각축하고 있다.

다소 거칠게 압축한 지역 문화정책의 경쟁 현실은 실제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골과 지방의 공간, 역사, 사람으로부터 ‘지역’이라는 균등한 적어도 균질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중앙과 도시 중심의 문화 지형에서 각 지역문화 정체성이 고양, 발굴되는 한편, 균질화/대상화되는 역설을 내포하고 실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실행되고 있는 문화생산 활동action은 지역 예술인가? 그리고 왜 지금 문화생산자들에게 지역이 필요한가를 살펴봐야 한다. 우선 간단하게, 글의 말머리에 언급한 지역과 지방 그리고 시골 등의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안에 위치한 문화생산 활동action 행위자agency와 지역 주체agency 간의 상호작용 interaction의 현재를 살펴보는 데 실마리가 된다. 그리고 지역 용어의 혼용은 왜 발생하는가라는 앞선 질문에 다가가면서, 동시대 장소성을 갖는 문화생산 활동action을 어떻게 위치 지을 수 있는가를 동시에 살펴보기 위해 가능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구글 검색에 “지역 문화”, “지역 예술”을 검색한 최근 기사와 알림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

“[지역의 발명] 지역을 위한 예술, 예술을 위한 지역” [2022.3.22, 생각의 지혜](#)

“지역 예술작품, 지역이 관심두고 키워야” [2020.7.10, 경남도민일보](#)

“문화채널마포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마포문화재단](#)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군포문화재단](#)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전국 지방문화원 231여 곳의 발간자료를 비롯한 지역문화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문화 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여...” [지역N문화](#)

이외에도 ‘지역’ 용어에 대한 다양한 의미의 용례를 상세히 다루긴 어려우나 2000년 이전의 기사에는 지방과 지역을 혼재하여 사용한 다양한 시각과 주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역 문화와 지역 예술이 키워드인 기사는 80년대 단 1건의 기사에서 88올림픽 시기부터 2000년을 전후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해(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참고) 신자유주의 자본 경제질서에서 지역경쟁이

가속화된 글로컬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현상 또한 짐작해 볼 수 있다. 위 사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시제로부터 지역과 지방이라는 용어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지방’이라는 단어의 용례는 점점 사라지고 ‘지역’이라는 단어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행정 당국 스스로 지역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 지형과 달리 일상에선 여전히 ‘지역’은 지방은 물론 소도시 또는 시골, 전원 등으로도 일반화되어 혼용된다. 영어의 region/local은 지방/지역, 지역과 지방은 영어로 region/local 때로는 province로 통용하기도 하고 사용자의 이해와 욕망이 반영되어 다르게 호명된다. 강조하면 시골 사람, 지방 사람이란 용어는 여전히 강력하게 발화한다.

다시, 문화 지형에서 지향된 용어 ‘지역’의 의미는 무엇인가? 문화적 의미망에서 ‘지역’은 영어의 로컬(local)을 경유해 현재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문화 권역(일상에서의 생활 권역 포함, 강원도 횡성과 원주는 일일 생활권으로 하나의 지역이기도 하다.)으로서 지역(regional)을 작동하는 장소를 초과하고, 행위 주체인 문화생산자는 (지역 문화행정의 경쟁적 문맥에서) 지역 경계를 넘어 전문가로 배치된다. 다만 구체적 지방(local)은 장소로서 그 지역의 다양한 문화 정체성의 요소인 사람, 역사, 일상은 지역 경계의 한정 속에 대상화된다. 이렇게 지역의 구분이 교차된 문화실천(action)은 상호적 문화실천(interaction)의 구조적 한계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는, 지역에서의 문화생산은 지역 경계를 넘어 전문가의 액션(action)과 대상화된 인터액션(interaction) 또는 지역 주체와의 인터액션 그리고 지역 주체(만)의 액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각 지방 문화행정에서 **‘지역’의 소환과 지역을 초과한 생산 주체의 귀환 속에서** 지역 문화생산의 행위 주체(agency)와 지역의 행위 주체(agency) 간의 상호적 문화실천은 지연되고 과장된다.

홍천 지역문화 공간 분홍공장(hongcheon regional culture space ‘pink factory’)은 2014년 지역 학생과 지역 어르신을 잇는 <나의 홍천 문화 이야기: 중앙시장을 찾아서>로부터 행정구역 홍천으로부터 (지역, 문화 정체성) 경계의 의미망을 문화적으로 질문하고자 설립된 독립

프로젝트의 생산 거점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지역성’, ‘전통’, ‘초국가 공간’, ‘이동’, ‘젠더’를 화두로 삼고로 문제의식을 공유한 초대된 국제작가와 함께 홍천 지역을 리서치하고 답사, 워크숍을 통해 심화하며 다양한 방법의 과정과 결과를 전시와 공연, 출판으로 기록하였다. 더불어 홍천의 인구구성을 고려하고 지역 정부의 사회 백서를 참조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화 주체와 지역 주체와의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지역의 구체적 장소, 신화와 자연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구성,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지인 시장의 유휴공간에 ‘분홍별관’이라는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민과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수백 명의 직접적 참여와 함께 홍천에서 홍천의 경계와 정체성을 질문하며 여전히, 홍천은 실재하는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 기제와 인과로부터 동시대적인가?를 질문한다. 그러한 질문들 앞에 홍천을 대상화한 역설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한계에 부침으로 나아가고, 돌아가고, 되돌아가 버리지만.

윌리엄스 Raymond Williams에 의하면 “문화란 예술이나 학문뿐 아니라 제도나 평범한 행동에도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를 표현하는 삶의 특정방식에 대한 기술”이며 달리 말하면 문화란 일상적 ordinary이며 공동의 것이다. 그리고 공동의 문화는 전체 구성원이 참여해서 얻는 조건의 창출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문화란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환영에 봉사하며, 아래의 자발성에 의한 ‘창조적이며 역사적인 동인’으로부터 새롭게 정초 되어 생성된다. 지역은, 아래의 자발성에 의한 문화생산자들의 다양한 문화가 경합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문화 실천들이 포착되는 지역으로, 이제 대상화의 늪에서 빠져나올 시간이다.

용해숙

용해숙은 시각 예술가이자 지역학을 연구하였으며 9년째 분홍공장 디렉터로 홍천과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